

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정부는 최고금리를 24%에서 20%로 인하함에 따라, 기존 고금리 이용자 중 약 87%(208만명)의 이자부담이 연간 4,830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,

○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~4년에 걸쳐 약 13%(31.6만명)의 민간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, 이 중 채무조정·절약 등을 제외하면 3.9만명(2,300억원)의 불법사금융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.

○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,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\*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.

\*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(3.31), 대부업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방안(4.1),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(4.26)

①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

○ 7월 7일부터 대환대출 상품(안전망 대출Ⅱ\*)를 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고, 햇살론<sup>17</sup> 금리도2%p 인하하는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.

\* 연 20% 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 1년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하며 ② 정상상환중인 저소득·저신용자 대상

② 또한, 대부중개수수료 인하\* 및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\*\* 등 원가 절감 지원을 통해, 대부업 등 고금리 업권에서의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.

\* 현행 4%(5백만원 초과 3%)인 상한을 최대 1%p 인하(시행령 개정안 규개위 심사 중)

\*\* 온라인대출플랫폼 이용 허용, 은행 자금조달 지원 등(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)

- ③ 아울러,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일제단속,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⇒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‘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\*’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전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\* 「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」(‘21.6.16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